

# 중국 조선족 사회



최두현(교육전문위원실 정책팀장)

# 중국 행정체제



- 4개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 22개 성(허베이성, 허난성, 산둥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 5개 자치구
  - 내몽골, 광시장족, 티베트, 닝샤후이족, 신장위구르

중국중앙정부 직할시

- 1 베이징시 北京市
- 2 톈진시 天津市
- 3 충칭시 重庆市
- 4 상하이시 上海市



# 중국의 민족구성



-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사회
- 소수민족 8.5%, 영토는 60% 차지

1	한족	Hàn Zú	汉族	漢族	1,230,117,207	2008
2	좡족(장족)	Zhuàng Zú	壮族	壯族	16,178,811	2005
3	만주족	Mǎn Zú	满族	滿族	10,682,263	2005
4	후이족(회족) <sup>[2]</sup>	Huí Zú	回族	回族	9,816,802	2005
5	먀오족(묘족) <sup>[3]</sup>	Miáo Zú	苗族	苗族	8,940,116	2005
6	위구르족	Wéiwú'ěr Zú	维吾尔族	維吾爾族	8,399,393	2005
7	투자족(토가족)	Tǔjiā Zú	土家族	土家族	8,028,133	2005
8	이족	Yí Zú	彝族	彝族	7,762,286	2005
9	몽골족(몽고족)	Měnggǔ Zú	蒙古族	蒙古族	5,813,947	2005

10	티베트족 <sup>[4]</sup>	Zàng Zú	藏族	藏族	5,416,021	2005
11	부이족(포의족)	Bùyī Zú	布依族	布依族	2,971,460	2005
12	동족	Dòng Zú	侗族	侗族	2,960,293	2005
13	야오족	Yáo Zú	瑶族	瑶族	2,637,421	2005
14	조선족	Cháoxiǎn Zú	朝鮮族	朝鮮族	1,923,842	2005
15	바이족	Bái Zú	白族	白族	1,858,063	2005
16	하니족	Hānī Zú	哈尼族	哈尼族	1,439,673	2005
17	카자흐족	Hāsàkè Zú	哈萨克族	哈薩克族	1,250,458	2005
18	리족	Lí Zú	黎族	黎族	1,247,814	2005
19	다이족 <sup>[5]</sup>	Dǎi Zú	傣族	傣族	1,158,989	2005
20	쉐족	Shē Zú	畲族	畲族	709,592	2005
21	리수족	Lìsù Zú	傈僳族	傈僳族	634,912	2005
22	거라오족	Gēlǎo Zú	仡佬族	仡佬族	579,357	2005
23	둥샹족	Dōngxiāng Zú	东乡族	東鄉族	513,805	2005
24	고산족 <sup>[6]</sup>	Gāoshān Zú	高山族	高山族	458,000	2006
25	라후족	Lāhù Zú	拉祜族	拉祜族	453,705	2005
26	수이족	Shuǐ Zú	水族	水族	406,902	2005
27	와족	Wǎ Zú	佯族	佯族	396,610	2005
28	나시족 <sup>[7]</sup>	Nàxī Zú	纳西族	納西族	308,839	2005
29	치양족	Qiāng Zú	羌族	羌族	306,072	2005
30	투족	Tǔ Zú	土族	土族	241,198	2005
31	무라오족	Mùlǎo Zú	仫佬族	仫佬族	207,352	2005
32	시버족	Xībó Zú	锡伯族	錫伯族	188,824	2005
33	키르기스족	Kēěrkèzī Zú	柯尔克孜族	柯爾克孜族	160,823	2005

#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



# 소수민족 정책과 분쟁



- 중국 정부는 1949년 소수민족에 폭넓은 자치권 부여 (자치구-자치주-자치현)
- 소수민족우대 정책 두 자녀 출산을 허용, 대학입학 우대, 범죄 관대한 처벌 등
- 민족분쟁
  -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자치구 분리독립
  - 2011년 네이멍구 광산 개발권 한족과 몽골족

# 티베트, 신장위구르 분쟁



## 티베트 독립운동 주요 일지

- 1950년 10월 중국, 티베트 점령 후 티베트의 독립 추진으로 분쟁 시작
  - 51년 5월 중국, 티베트를 소수민족 자치구로 편입
  - 96년 5월 달라이 라마 지지하는 새 반대정부 수립
  - 98년 4월 티베트 임시정부, 대만 '사무소' 설치
  - 2002년 11월 티베트 정부, 중국에 시한부 정치협상 제의
- 자료=한국국방연구원



##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구: 2181만명(위구르족 940만명·43%)  
 면적: 166만km<sup>2</sup>(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최대)

### 역사

- 1759년 청나라에 병합
- 1865년 반란으로 독립
- 1877년 청나라 반란 진압
- 1949년 신중국 지배체제 편입
- 1990년대 독립운동단체 동투르키스탄이슬람 운동(ETIM) 설립
- 2009년 7월 우루무치 폭동 발생, 위구르족·한족 등 197명 사망
- 2013년 9월 공안 당국, 테러혐의로 7명 사살

# 중국 길림성 위치와 지도



# 길림성 연왕



- 지린성(吉林省) 개황
- 면적 18만 7,400km<sup>2</sup>(남한의 약 2배)
- 인구 2,746만 명
- 성도(省都)는 창춘(長春),  
8개 시(市)  
20개 현급시(縣級市)  
21개 현(縣)

#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황



인구	220만명	한족 60.4%
조선족	80만명 (37%)	<u>연길</u> , <u>용정</u> , <u>화룡</u> , <u>도문</u> , <u>훈춘</u> 다수거주
주도	연길시	
연혁	1952년 조선족 자치구	1955년 조선족 2% 둔화시 포 함되어 자치주 로 격하

# 중국동북 지역 이주



- 명청(1600년대 초중반) 교체기부터 이주
- 도문강(두만강), 압록강 월강 -인삼,사냥
- 청나라 말기 (이주 금지, 허용)
- 조선후기 (개간, 농지확보, 식량확보)
-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 식량난)

# 우리에게 연변은, 이주사



- 우리에게 연변(간도), 중국 동북은
  - 고조선과 고구려 영토
  - 식민지 항일운동 고난, 자존심
  -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
- 한민족의 중국동북 이주
  - 17세기 호란패배 포로
  - 18세기 인심, 농경지 확보
  - 조선후기, 일제식민지 대거 이주

# 잊어진 연변(조선족)



- 청나라, 일본지배 거치며 ‘항일운동근거지’ 정도로 인식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한국전쟁을 거치며 북한과 더욱 가까운 사람들로 인식되며 우리에게서 망각
  - 고향(조국)을 떠나 살아야 했던 사람들 삶을 성찰하는 노력부족
  - 한국사회에 필요했던 연변은 ‘만주벌판 말달리며 활을 쏘는 독립운동가’ 였지 ‘공산당’은 아니었다는 인식아래 잊혀진 존재

# 한중수교 이후 연변



- 1992년 (갑작스런) 한중수교-연변동포
- 연변동포 - 오랜 기간 상이한 역사적 환경에서 살아온 그들을 마음으로 포용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민족동질감)
- 한국거주 연변조선족 - 약 40~50만명
- 2006년까지 - 한국 출신 조선족만 입국허용

# (길림성)장백 조선족 자치현



#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



- 소수민족 자치보장하는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인민대표대회제도’ ‘정치협상회의제도’와 함께 중국의 3대 기본 정치 제도.
- 민족구역자치제도- 소수민족 스스로 집거구역에서 자체 민족 내부 사무를 관리하고, 각 민족의 평등과 단결을 공고히 하고, 민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민족의 특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민족모순을 올바르게 해결한다는 이념

# 소수민족 – 민족자치구역성립과정



- 1922년 7월-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  
- 몽골, 서장(티베트),신강 자치방을 추진하고 자유연방제의 바탕에서 중화연방공화국 건립 표방(연방제로 민족문제 해결원칙)
- 1928년 7월-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10대 정강에서 민족자결권 승인
- 1931년 11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 에서 소수민족의 완전한 자결권, 자치지역건립, 민족문화 및 민족언어 발전 적극 고무
- 1936년 5월 모택동 주석-소수민족 민족구역자치이론 천명(예해현회민자치정부 최초건립)
- 1941년 5월 – 민족자치구역 법률화
- 1945년 4월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모택동-민족자결을 강조하며, 분리,독립권 언급을 피하며, 민족문제 후퇴
- 1947년 5월 – 내몽골 자치정부 성립
- 1949년 9월 – 제1차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민족자치구역정책 국가 방침으로 최종 확립
- 1952년 8월 – 민족자치지역실시요강 발표- 5개 자치구, 30개자치주, 120개 자치현(155개 소수민족자치지방)

# 조선족 자치주 성립



- 중국 동북국 - 조선족 이중국적 승인, 토지분배
- 1946~1948년 4월 : 토지분배
- 당시 인구 718,886(조선족 81.8%)
- 1952년 9월 3일 -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인민정부위원회 구성(구덕해 주석) 자치구 성립
- 중국내 조선족 자치지역 43개(동북3성중심-조선족 향급)

# 연변사시주 60주년 행사(2012)



# 자치주 정치(행정)체제



- 주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자치주의 국가 권력기관
  - 정부, 법원, 검찰원의 사업을 감독
  - 인민대표들이 제기한 각종 제안심의
  - 자치주 조례제정
- 주인민정부 - 자치주의 집행기관
- 민족구역자치법에 의해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과 주정부 주장은 조선족
- 자치주에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 차광철 인대대표대회주석, 리경호 주인민정부 주장



# 자치주 문화예술



전문예술 표현단체	문화관	향촌문화 보급소	박물관	도서관	라디오 방송국	TV방 송국	조선어 잡지	조선어 신문
8개	8개	79개	5개	9개	5개	9개	12종	6종

자치주 주급 비물질문화유산 89개	조선족항목 69개
황구연의 민간이야기 등 77개 항목은	길림성 성급 등재
조선족 통소음악, 조선족 복장 등 16개 항목	국가급 등재
중국조선족농악무는 2009년	유네스코 등재

# 자치주 조선족 감소 문제 심각



1949년 64.36%

• 529,258명

1950년 50.17%

1990년 39.5%

• 821,479

2000년 36.26%

• 801,210

구분	연변지역	길림성 (연변제외)	요녕성	흑룡강성	북경 등
2000년	85만	33만	35만	45만	2만
2013년	80만	24만	23만	33만	15만

# 조선족 자치주 변화(!)



- 중국의 시장화, 개방화 및 한중수교로
- 조선족의 활동영역이 넓어져 전통집거지 해체가속화
- 민족집단으로서 조선족의 존속문제를 심각한 상태로 만들 위험
- 한국기업 1만5천개 청도- 조선족 10만
- 북경, 상해, 심양 등에 조선족 집거해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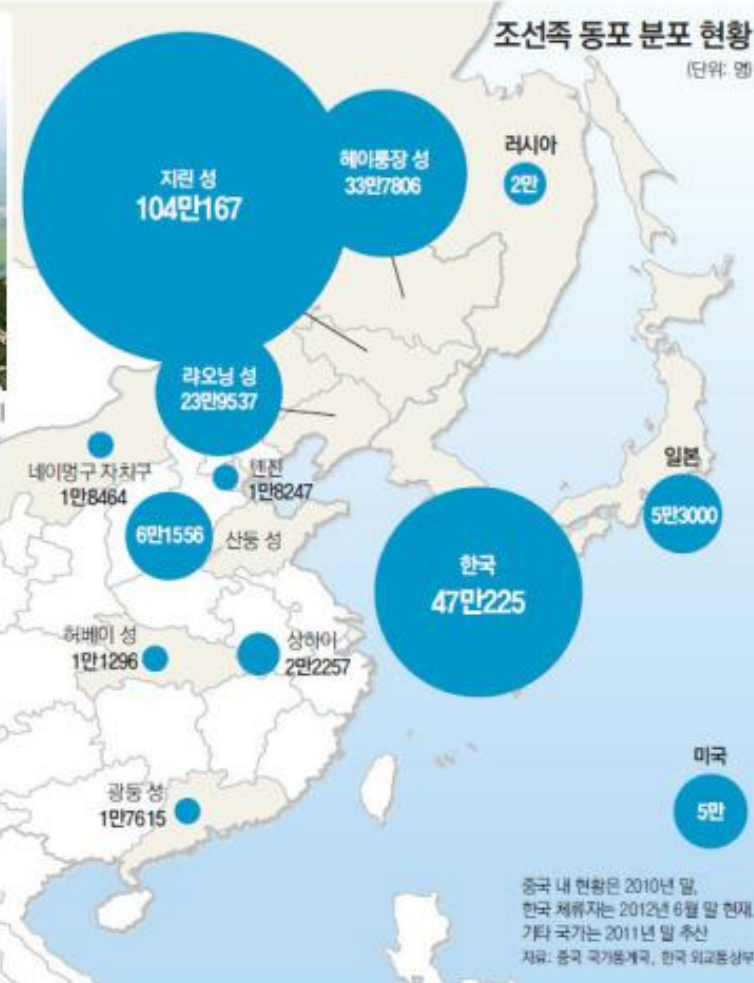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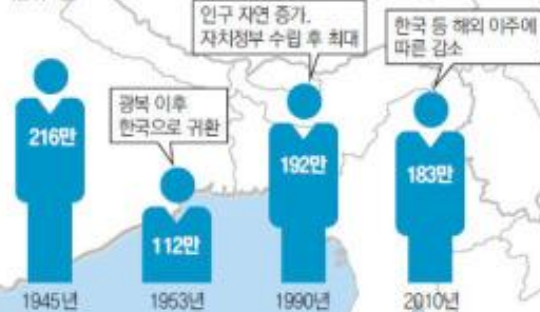
# 조선족 분포도(2010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 60주년을 맞아 연지 시가 내려다보이는 마오얼 산에 높이 181m의 기상레이더 경관탑이 세워지고 있다. 연변자치주는 설립 기념일인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연변박물관과 조선족민속원 도서관 박물관 등을 새로 짓거나 단장했다.

## 중국 내 조선족 동포 추이

(단위: 명)



# 조선족의 전통 집거지 예체



- 중국 동북3성 조선족 인구이동

한국	일본	미국 뉴욕	영국 남미	북경 천진 등	청도, 연대, 위해	상해, 남 경, 항주, 광둥 등
40~50만	5만3천	2~3만	수백명	15만 한국인 10만	30만 한국인 12만	15만

- 동북3성 조선족 중 60만명이 외국, 중국내 타지역 거주
  - 농촌집거지 젊은여성 타지역 전출로 총각들 혼인난
  - 그러나 현재는 총각들도 도시로 빠져나가 노인만
  - 조선족 마을이 한족에 의해 대체되는 추세

# 자치주 학교환경



- 중국 1992년 9년제 의무교육 도입
- 개혁개방으로 인구유출로 학생수급감, 교사유출, ‘민족 정체성유지’와 ‘중국화-세계화’ 시간 간의 갈등
- 2002-2008년 7년 사이 (조선족 학교 134에서 77개로 감소)
- 부모 이혼, 사망, 별거, 취업 등 관련된 학생이 54.7%
- 부모들의 한국취업(이혼 가정 1/4)
- **부모들은 고생, 아이들은 고통**

# 조선족 학생을 한국어사용



초등학생	62.5%
중학생	48%

- 한국말 전혀 모름 (길림성 민족학교연구소 2009년 조사)
- 중국정부는 동북공정 등을 이유로 조선족 학교에 중국어로 수업할 것 요구

# 조선족 자치주 교육환경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연변대학
33개	32개	37개	1-1

국가지정 교과목외

- 조선족예의, 조선족예의규범, 조선족언어와예의 등 민족문화교육 진행

-55개 소수민족 중 가장먼저 민족대학설립(연변대학)

-연변자치주, 흑룡강성, 요녕성에 중등 조선족사범학교 운영

-20세기 초 조선의 독립운동과 문화계몽 차원에서 학교설립 및 교육열 고취

-1920년대 조선서북부와 소련 연해주 등에서도 유학오는 교육중심지역

-일제에 의해 조선민족교육 핍박

-1945년 해방후 민족교육 빠르게 회복, 문화혁명 당시 민족교육 파괴

-문화혁명 여파로 개혁개방 후 민족교육 활성화

-한중수교 이후 한국바람(일명 간다바람)으로 공동체 및 집거지 해체로 민족교육 탈색화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서 . . .

**감사합니다!**